

새로운 次元의 原電 建設技術을 追求

(株)大宇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그렇듯이 원대한 포부를 얘기하며 기대에 부풀게 된다. 특히 우리(주)대우는 어느 해보다 많은 기대속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그것은 92년 11월 월성원자력 3, 4호기 기공식을 시점으로 본격적인 원자력건설 참여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많은 플랜트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안전성과 시공품질을 요구하는 원전건설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새로운 건설분야로의 진출에는 기대감 속에 조심스러움이 상존하는 것은 어찌하면 당연할 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중함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이다. 즉 이제까지의 여러 분야에서 쌓은 건설관리능력 및 시공기술의 총화 속에 선진기술과의 접목으로 새로운 차원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기술 창출 및 추구를 위한 심호흡이기 때문이다.

1993년도 험난한 국내외적 환경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신

정부와 EC 등에 의한 자국 실리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건설업을 포함한 전 산업의 국제 기술 경쟁력 구축이 요구될 것이고, 내적으로는 문민정치시대 도래에 따른 각 계층의 다양하고 무거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진통이 있을 것이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내외적 환경다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극복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세계 10위 원전 보유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원전건설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영방침을 구현할 것이다.

첫째, 기술력 강화로 품질의 고급화 실현을 이를 계획이다. 우선 기술력 강화를 위해 (주)대우 건설기술연구소와 고등기술연구원(IAE)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부서간의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기술의 특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안전성 제고와 공기단축을 위한 공법개발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사업관리체계(Total Project Management) 운영을 위해 현장 및 본사 전 조직에 전산시스템 체계를 구성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힘을 계획이다. 아울러 품질의 고급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의 일환으로 ASME 인증서(NA, NPT Stamp)의 유지 뿐 아니라, 93년말 ISO 9000 인증 취득을 위한 TFT가 구성되어 현재 활동중에 있으며, 전 조직에 대한 교육, 이행관리 및 재인식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대우는 유사 이래 가장 非可變的 경쟁력은 오직 「품질」이라는 인식으로 기술력 강화를 통한 품질의 신뢰성 향상에 노력할 것이다.

둘째, 인력관리 강화로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이를 계획이다. 자기계발을 위한 동기부여는 물론 분야별 전문가와 관리자 육성을 위한 중장기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전 조직원의 능력개발 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원자력 건설요원에 대한 해외원전 건설분야 연수 및 연수사례 후속 적용관리도 92년도에 이어 계속될 계획이다. 이러한 선진기술 도입 및 현장 실제적용 노력은 인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보다 우수한 원전 건설기술로 표출될 것이다.

셋째, 경영혁신을 통해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성을 추구할 계획이다. 이의 구체적 실현으로 현장의 자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여 중요사항을 신속하게 검토, 결정함으로써 공기단축 및 작업능률 향상을 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경영방침



〈그림 1〉 월성원자력 3, 4호기 기공식 장면

뿐만 아니라 건설 참여사간의 협력 및 원활한 업무진행을 통해 원전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올해도 예년처럼 「위험 전력 예비율」 시대를 대비한 여러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전망이다. 다양한 문화패턴으로 인한 전력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결국 원전의 적기 준공을 요구하므로, 전 참여사간의 협조체계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양질의 값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현재, (주)대우는 선형 호기인 월성 1호기 건설기록을 시공, 품질, 공정, 자재 등 각 분야별로 상세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새로운 공법 및 기법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계속되고 있다. 즉 시공품질은 결국 운전 및 운영품질과 직결되므로 작업별, 공정별 최고의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캐나다 AECL社와의

협력방안도 모색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상호 기술 및 인적교류를 통한 향상된 원전건설 관리능력으로 승화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주)대우는 지금까지 추구해 온 건설의 EC化(Engineering & Construction) 및 Gene-Con化 (General Contractor)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새로운 차원의 원자력 건설기술 창출을 통한 월성원자력 3, 4호기의 성공적 건설로써 귀결될 것이다.■